

가족경영협약이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확대에 미치는 효과

강경하·허미영*·이진영·최윤지·김경미·황대용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The Effects of Family Management Agreement on the Increase of Participation in Farm Management among Women Farmers

Kang, Kyeong Ha · Huh, Mee Young* · Lee, Jin Young · Choi, Yoon Ji · Gim, Kyung Mee · Whang, Dae Yong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orea
Center for Women' Studie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Recently some Korean feminists have reported the family management agreement (FMA) can contribute to enhance the women farmers' legal status and to improve their farm management. The FMA is a formal document written eac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n the farm management, income allocation, and labor condition such as working time and work-off days agreed among family members. Since 2004, 161 farmer couples have signed and practiced the FMA after two-day workshop scheduled for the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FMA on the increase of participation in farm management among women farmers. Data were collected from 204 FMA couples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Also interview and participating observation were carried out. Paired t-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12.0 for Windows program.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Women farmer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f farming activiti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an before the FMA. However, husband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is higher than women farmers even after the FMA. After the FMA, labor compensation, regularly or irregularly, for women farmers has increased to 53.3%, 35.3% higher than 18% of the previous study and women farmers' ownership of their farm assets has increased to 48.1% from 29.1%. Also, there is a tendency women farmers' role as a representative of their farm has increased. In conclusion the FMA makes women farmers participate more in farm management as decision maker, income beneficiary, farm asset owner, and farm representative, which encourage them to get the legal status as a farmer and to control their farm management risk. It is suggested that the FMA be selected as a program in order to strengthen th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Key words: family management agreement(FMA), participation in farm management, women farmers

I.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농촌의 급격한 가족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참여 및 경영참여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여성농업인¹⁾의 경우 남성농업인 못지않게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허미영·박민선 2004). 우리나라 농가 여성 가운데 93%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직업적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농업인 인정을 받지 못하여 교통사고 보상 미흡, 정책사업 지원·융자·연금·복지 수혜의 소외 등의 성 불평등 문제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여성농업인이 82% (11%는 법적 농업인 인정 가능, 7%는 비농업인)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김경미 2006a; 이진영 등 2006). 법적으로 농업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 농업종사에 따른 노동가치가 무시되고 무급가족종사자로 평가받게 되는데, 영농후계자도 동일한 상황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은 지나칠 정도로 과중하지만 과중한 노동에 비해 이들이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근거로서 이들의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지표로 제시하였다(김이선 1997; 김종숙 등 1992; 박민선 1984; 이호철 등 2002; 허미영 2002, 2003; 허미영·박민선 200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의사결정참여에 경영참여 지표를 국한하였던 종래의 연구를 비판한 허미영과 박민선(2004)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를 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성과참여, 재산참여, 의사결정참여, 경영대표권 등 네 가지 영역에서 경영참여 지표를 설정하고 시설오이, 시설딸기, 시설장미, 시설나타리버섯, 사과 등 5개 작목의 농가에서 각각 30호씩 150농가의 부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실태와 경영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수준이 낮았는데, 부부간에 경영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부

인을 공동경영자로 인정할수록, 부인이 영농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여성농업인이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나이가 젊을수록, 부인이 영농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여성농업인이 성과·재산·경영대표권 등의 참여를 더 많이 하였다.

최근 몇몇 페미니스트 사회학자들(김경미 2004, 박민선·허미영 2005, 최윤지 2007, 강혜정·마상진 2007)이 여성농업인의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데 가족경영협약이 유효함을 보고하고 있다. 가족간 협약을 통하여 공동경영주로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가 여성이 효과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하여 경영개선에 더욱 기여하게 되고, 다시 법적 지위 향상에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과 일본에서 원활한 영농승계 방안으로서 부자협약이 추진되었는데(양승춘 1984), 일본에서는 여성이나 가족종사자들의 참여 저조로 부자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농가의 경영개선이 바로 가족종사자들의 지위 확립 및 인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1990년대에 가족원의 경영참여 확대 및 동반자관계 건설로 초점을 둔 가족경영협약으로 바꾸어(고조미요시 2006) 추진함으로써 1995년 이후 가족경영협약 농가 수는 매년 2~3천 호씩 증가하여 2006년 현재 35천여 호가 참여하고 있다. Kawate (2007)는 일본에서 농촌여성의 역량 발휘뿐만 아니라 농가경영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가족경영협약과 농촌여성기업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역할확대 지원 방안의 하나로서 가족경영협약 모델이 개발되었고 2004년부터 대전시의 22농가에 현장 적용(박민선·허미영 2005)되기 시작하여 2007년 말까지 161농가 부부가 참여하고 있다. 1박 2일간의 가족경영협약 체결을 위한 부부 워크숍에서 경영목적, 경영계획, 경영 역할분담, 이익분배, 근로조건, 장래 경영이양, 기타 생활문제 등에 대하여 부부가 상의 합의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서명(협약 체결)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간의

1) 여성농업인 개념은 농촌여성, 농가주부 등보다 직업적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적 협약으로서 가족경영협약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일하다. 말하자면 가족경영협약의 법적 근거는 없다.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아시아국가들 안에서도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따라 상이하였다. 일본에서는 가족경영협약이 농촌여성 기업활동과 더불어 농촌의 여성 역량을 발휘토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화의 중요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데 반해, 동남아 국가들²⁾에서는 가족경영협약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고 다만, 자국의 농업 농촌의 양성 평등사회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가족경영협약이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법적 지위 향상(Kang 2007), 궁극적으로 농가경영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경영협약이 농가에서 여성농

업인의 경영참여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개방화시대 농업경쟁력 강화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두었다.

II. 연구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2006년 말까지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한 114농가 부부 228명이었다.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허미영과 박민선(2004)의 연구를 참고로 구조화된 문항으로 작성하여 2007년 6월 28~29일까지 2일간 21농가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여섯 가지 영농활동에서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에 '부부 의견의 합을 100%로 볼 때' 본인의 의사결정참여도, '부부 기여도의 합을 100%로 볼 때' 본인의 기여도, 부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teristics	Category	N(%)		
		Husband(N=100)	Wife(N=100)	Total(N=200)
Age(year)	under 40	1(1.0)	4(4.1)	5(2.6)
	40-49	32(32.7)	47(48.0)	79(40.3)
	50-59	43(43.9)	40(40.8)	83(42.3)
	60-69	21(21.4)	7(7.1)	28(14.3)
	70 and over	1(1.0)	0(0.0)	1(0.5)
	total	98(100.0)	98(100.0)	196(100.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8(8.0)	5(5.1)	13(6.5)
	middle school	28(28.0)	43(43.4)	71(35.7)
	high school	50(50.0)	44(44.4)	94(47.2)
	2-year college	8(8.0)	4(4.0)	12(6.0)
	university and over	6(6.0)	3(3.0)	9(4.5)
	total	100(100.0)	99(100.0)	199(100.0)
Farming career	10 years or less	10(10.0)	12(12.6)	22(11.3)
	11-20	24(24.0)	36(37.9)	60(30.8)
	21-30	37(37.0)	35(36.8)	72(36.9)
	31-40	23(23.0)	9(9.5)	32(16.4)
	41 years and more	6(6.0)	3(3.2)	9(4.6)
	total	100(100.0)	95(100.0)	195(100.0)

2) 2007년 8월 중국 허베이성 상허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농촌사회학회 국제학술대회, 2007년 10월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된 '아시아 농촌개발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향상'에 관한 농촌진흥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비료기술센터 공동 국제세미나, 그리고 2008년 7월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세계농촌사회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의 한 분과이었던 '동아시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에 관한 한일 공동 세미나 등에서 토론하였던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필리핀 등의 전문가들 의견이다. 대만에서는 일본의 가족경영협약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 시도는 없다.

인의 노동대가 보상의 방법과 금액, 농가의 상품 출하자 명의, 농산물 판매대금의 입금통장 명의와 통장관리자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 학력, 영농경력, 농가의 주 작목과 연간 소득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내용은 동일하지만 부부가 상이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문지의 색을 달리 하여 선물과 함께 우송하여 2007년 8월 6일부터 9월 21까지 1.5개월 동안 회수하였다. 설문지 회수를 위하여 수차례 전화로 조사협조 요청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 회송이 늦어지는 이유는 '바빠서', '남편이 설문지 작성을 회피하여' 등이 있었다.

설문지는 조사대상 114농가 부부에게 배포하였으며, 102농가 부부로부터만 회수되어 회수율 89.5%이었다. 응답 기제가 부실한 2농가 4매를 제외한 100농가 200매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SPSS 12.0k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였고 쌍대 t검정으로 협약 전과 후의 차이를 유의수준 5%로 검증하였다. 문항분석에 있어서 항목에 따라 발생한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사례수의 합은 반드시 100명 또는 200명이 아닐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 영농경력을 보면 (Table 1), 남편의 연령은 50대가 43.9%, 40대 32.7%, 60대 21.4%였으며, 부인은 40대가 48.0%, 50대 40.8%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60대, 7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족경영협약에 참여한 농가 부부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었다.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 50.0%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졸이 28.0%이었고, 부인은 고졸이 44.4%, 중졸이 43.4%로 전체적으로 중·고졸이 82.9%를 차지하였다.

남편의 영농경력 21-30년이 37.0%, 11-20년 24%, 31-40년이 23%였고 부인의 경우에는 11-20년이 37.9%, 21-30년이 36.8% 등이었다.

가족경영협약 농가의 주 작목과 소득을 보면 (Table 2), 주 작목은 식량작물이 32.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채소 23.7%, 과수 21.6%로 전체 77.3%를 이 세 작목이 차지하였다. 소득수준은 32.9%가 3,000만원 미만이었으며, 3,000-

5,000만원이 24.7%, 5,000-7,000만원이 18.8%였고, 1억원 이상 농가도 7.1%나 되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가구 비율이 높았다.

가족경영협약 농가의 전국 분포를 고려하여 22농가를 임의 추출하여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연구자들이 농장 또는 가정을 방문하여 부부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 내용은 가족경영협약 이후의 생활이나 농업경영상의 변화, 부인명의로 자산소유 변화와 배경 그리고 효과, 애로사항 등이었다. 연구자들은 또한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가족경영협약 농가 부부들의 재교육 프로그램과 부부 모임에 6회 참여하고 관찰을 수행하였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 카페 개설을 지원하고 카페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가족경영협약 희망농가 부부 워크숍 프로그램을 2회 협의 기획 시행하면서 관찰의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결과는 양적 분석 결과의 해석에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의사결정 참여와 영농역할 기여 확대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간영농계획', '품종선택과 식부면적결정', '수입과 지출의 관리', '판매처 및 판매량', '주요 농작업의 시간계획', '신규 시설 및 장비

Table 2. Main crop and income of farm households

Classification	Category	N(=100)	%
Main crop	staple food crop	31	32.0
	special crop	8	8.2
	vegetable	23	23.7
	fruit	21	21.6
	others	14	14.4
	total	97	100
Income /year	under 30 million won	28	32.9
	30-49 million won	21	24.7
	50-69 million won	16	18.8
	70-99 million won	14	16.5
	100 million won and over	6	7.1
	total	85	100.0

투자' 등의 영농활동에서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에 '부부의견의 합을 100%로 볼 때' 본인의 의사결정 참여정도를 조사 분석하였다(Table 3).

남편들의 응답을 보면,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 모두 대략 70% 정도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협약 전에 비하여 협약 후에 남편의 의사결정 비중이 근소하나마 줄었는데, '수입과 지출관리'에서만 유의차가 있었고 그 외 항목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그러나 부인들의 응답은 남편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부인은 협약 전에 비하여 협약 후에 본인의 의사결정 참여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연간영농계획', '품종선택과 식부면적 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등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판매처 및 판매량', '주요 농작업의 시간계획', '신규시설 및 장비투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도 역시 증가하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경영협약이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 가족경영협약 부부 워크숍은 부인의 농업경영 참여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켰고, 가족경영협약을 실천하면서 부부가 상의하는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인정과 지

원을 받게 되고 기술적 자신감과 함께 자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경영협약 후에 부부 모두 농업경영 책임의식이 높아졌으며 (허미영 등 2007), 여성농업인의 자각과 책임의식의 증가는 주체적으로 학습과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저는 소위 앞서가는 리더 농어민부부로서 일은 더욱 늘어나고 신경 쓸 부분들은 더 많아졌음에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부부가 책임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깨달음이었습니다. (.....) 오랜 전통을 거듭한 끝에 협약문에 서약하게 되었는데 서로 갈등하고 의논하며 하던 이런 시간까지도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가족경영협약 부부 워크숍 참가했던 여성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

(부인) 금년에는 신랑이 허락해 줘서 오산시 한신대학교 사회지도자과정(주 1회)에 다니고 있다. 왕복 네 시간이 걸리는 데도 결석하지 않고 다니고 있다. 신랑에게 고맙다. 또한 협약 이후에는 전보다 더욱 귀한 존재

Table 3. Comparing before and after FMA in couple's participation level in decision making of farming activities

Couple	Farming activity	N(=100)	Before FMA	After FMA	Paired t-value
			mean(SD)	mean(SD)	
Husband	farming planning	81	78.5(22.1)	75.1(19.0)	1.673(NS)
	variety and scale	69	76.8(25.2)	73.9(22.4)	.673(NS)
	income and expenditure	74	71.0(27.8)	65.7(25.3)	1.276*
	market and sales volume	70	72.6(25.5)	69.3(24.2)	2.081(NS)
	working plan	71	73.4(24.4)	70.0(22.5)	1.705(NS)
	investment in facilities	58	75.0(27.4)	72.1(24.5)	1.850(NS)
Wife	farming planning	76	49.1(26.9)	60.3(26.7)	-4.544*
	variety and scale	61	48.0(29.9)	57.1(26.7)	-3.497*
	income and expenditure	68	56.9(30.6)	64.5(26.4)	-2.775*
	market and sales volume	66	53.9(30.7)	58.6(29.7)	-1.540(NS)
	working plan	66	53.7(26.4)	56.5(26.5)	-1.361(NS)
	investment in facilities	55	46.9(31.6)	51.3(29.8)	-1.577(NS)

* P<.05, NS = Non significance; range of mean 0~100.0

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뭔가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연천군 이00, 박00부부).

(부인) 전에는 신랑이 시키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농사일도 내가 알게 되고 내 일도 알아서 하게 되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는 사과대학 강좌에 거의 빠진 적이 없다. 대부분 교육을 신랑하고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있다. 농업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협에서 돈을 빌리거나 갚고 하는 일은 도맡아서 처리하고 있다(문경시 윤00, 양00부부).

(부인) 대추재배면적을 6,000평에서 3,000평으로 줄였다. 2008년에 자녀 2명이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다. 남편은 농작업 위탁 작업을 하므로 작업용도별 기계를 구비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나는 능력껏 집에 있는 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부 모두 현재의 영농경영실태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농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부부끼리 상의하는 경우가 많다(경산시 임00, 이00부부).

(부인) 2006년도 가족경영협약을 하고 남편은 농업인으로서 자부심 많이 커졌고 서로

의논하는 것이 많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좋았다(군산시 두00, 김00부부).

(남편) 협약교육을 받기 전에는 부인의 기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도입하려는 신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기보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부인이 불만스런 가운데 억지로 따라왔지만 이제는 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려고 노력한다. 또한 부인의 기술은 일꾼을 사서 할 경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인력이라고 평가해 줌으로서 부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대전시 신00, 윤00부부).

가족경영협약은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 역할 기여도 확대하였다. '부부 기여도의 합을 100%로 볼 때' 여섯 가지 영농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기여도를 조사 분석하였다(Table 4). 남편들의 응답을 보면, 모든 영농활동에서 역할 기여도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주요 농작업의 시간계획에서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으나 나머지 영농활동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하지만 부인의 역할 기여도는 가족경영협약 전에 비하여 협약 후에 모든 영농활동에서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신규 시설 및 장비 투

Table 4. Comparing before and after FMA in couple's role playing level of farming activities

Couple	Farming activity	N(=100)	Before FMA	After FMA	Paired t-value
			mean(SD)	mean(SD)	
Husband	farming planning	74	76.2(21.8)	73.1(20.2)	1.522(NS)
	variety and scale	63	74.0(25.7)	71.1(23.9)	1.358(NS)
	income and expenditure	66	70.3(26.1)	65.5(25.3)	1.358(NS)
	market and sales volume	64	73.3(26.3)	70.2(25.0)	1.903(NS)
	working plan	63	72.1(23.4)	66.8(21.6)	1.345*
	investment in facilities	52	77.3(24.7)	72.8(24.1)	2.528(NS)
Wife	farming planning	69	51.5(25.0)	61.3(26.1)	-3.674*
	variety and scale	54	47.4(26.6)	56.6(27.6)	-3.443*
	income and expenditure	62	56.3(30.6)	65.1(27.6)	-3.443*
	market and sales volume	60	53.7(28.7)	59.6(30.9)	-3.039*
	working plan	59	55.5(26.0)	58.9(27.7)	-2.602*
	investment in facilities	49	46.6(31.2)	51.3(30.6)	-1.715(NS)

* P<.05, NS = Non significance; range of mean 0~100.0

자를 제외한 다섯 가지 영농활동 영역에서 부인의 역할 기여도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2. 경영성과 참여 확대

여성이나 후계자 등 가족종사자는 농가소득의 일부 보상을 통하여 그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보다 더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김경미 2006b). 농가 소득의 일부를 여성농업인에게 노동 대가로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상 내지는 배분하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는데(Table 5), 보상이 이루어지는 농가가 53.3%이었고, 정기적 보상은 18.9%, 비정기적 보상은 34.4%이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 보상 여부를 조사한 선행 연구(허미영 · 박민선 2004)에서는 18%의 농가가 보상을 받았는데 정기적 보상이 8%이었고, 10%는 비정기적 보상이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이 연구의 가족경영협약 농가에서 53.3%가 여성농업인 노동의 대가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선행연구의 18%보다 35.3%P 높은 비율이며, 가족경영협약의 결과로서 여성농업인의 경영성과 참여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몇몇 농가는 부채 때문에 약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 가족경영협약 농가 부부는 부채 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기 때문

이다.

다음 심층면접 사례를 보면 부인은 노동대가 보상을 받음으로써 경영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남편 또한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인) 이익분배 부분인데 협약 당시 남편이 내 의견에 합의해 주지 않아서 속이 많이 상했다. 그때 남편은 경제권을 넘기는 것은 생각을 못할 정도로 완고하였다. 협약 후 몇 달이 지나도 약속한 보상액이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아 속이 상했지만 내 판단에는 남편이 백팔십도 변했다. 2006년부터 농자금과 생활자금 일체를 내가 관리하게 되었다. 남편이 자금관리 했을 때보다 경영이 훨씬 낫다. (남편) 부인통장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농자금과 관련하여 부인의 판단에 합당한 지출이라는 생각이 들면 지출을 결정해 줘서 문제가 없다(대전시 김00, 정00부부).

(부인) 소득이 발생하면 30% 정도는 내 통장으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내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이 마음 뿌듯하다(여주군 김00, 유00부부).

(부인) 생활비를 받아쓰지 않고 카드로 결제해 편리하게 쓰고 있다(대전시 김00, 성00부부).

또한 여성농업인 노동대가 보상은 가정경제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농업인이 ‘안심’과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남편이 부인의 역량을 심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가족 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재산 참여 확대

가족경영협약 농가에서 주목할 만한 경영참여 변화 중의 하나는 여성농업인의 재산참여 증가이다. 이 연구에서 응답한 79농가 중 51.9%는 부인명의 자산이 없고, 48.1%는 부인명의 혹은 부부 공동명의로 자산(농지, 건물, 사업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가족경영협약 이전부터 부인명의 자산이 있었던 농가는 24.0%, 협약

Table 5. Wife's participation in income and assets in FMA couples

		(N=100)	
Classification	Category	N(%)	
Labor-compensation	no compensation	42(46.7)	
	compensation	regularly	17(18.9)
		irregularly	31(34.4)
		sum	48(53.3)
	total	90(100.0)	
Assets-ownership	no ownership	41(51.9)	
	already ownership before the FMA	19(24.0)	
	already ownership before the FMA and increase after the FMA	4(5.1)	
	new ownership after the FMA	15(19.0)	
	total	79(100.0)	

이전에도 자산이 있었고 협약 이후에 증가한 농가는 5.1%, 가족경영협약 이후에 처음으로 부인(또는 부부공동) 명의 자산이 생겼다는 농가는 19.0%로 나타났는데, 여성농업인의 자산보유율이 가족경영협약 전에 29.1%에서 가족경영협약 후에 48.1%로 19.0%p 증가하였다.

선행연구(허미영·박민선 2004)에서 부인명의 농지 또는 기타 자산 보유 농가는 10.7%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본래 가족경영협약 농가의 부인의 자산보유율이 높지만 가족경영협약이 여성농업인의 재산참여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은 확연하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농림부 1999)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율은 22.5%이었는데, 남편이 없는 노년층이 주로 본인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여성농업인이 가장 원하는 사항은 전체 응답자의 35.3%가 선택한 '결혼 후 마련한 재산은 공동소유'이며 '노동에 대한 보수 인정'이 31.0% 등이었다.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부부간의 자산 명의이전이 쉽지 않은 일인데, 부부 워크숍을 통하여 가족경영협약을 논의하고 실천하면서, 자산의 부인명의 이전이 기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농촌의 가족관계는 이미 몰라보게 변화하였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행태에 관한 교과서의 기술은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서강대학교 조옥라 교수³⁾의 지적처럼 농촌의 가족생활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귀중한 젊은 부부가 채무보증 때문에 남편이 신용불량자로 되었을 때 부인 혼자서 어떠한 경제활동도 불가하여 다시 도시로 이주'(박민선 2004)한 사례에 비추어 일부 자산의 부인명의 보유는 농가경영의 지속에 의미가 크다. 다음 심층면접 사례를 보면 부인명의 자산은 상속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부인이 요구하기 전에 남편이 알아서 등기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이전에 부인에게 자산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가족경영협약 후에 남편명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 농가도 있었다.

(부인) 논 560평과 밭 400평이 있다. 논은 친정에 딸도 조금 달라고 해서 친정배려로 3년 전에 받은 것이고, 밭은 5년 전 구입할 때 신랑이 당신 앞으로 하자고 해서 내 명의로 신고하였다(연천군 이00, 박00부부).

(부인) 2007년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하여 농지 500평을 부인에게 등기해 주었다. 부인명의로 농지를 등기하였고 농협조합원가입을 하기 위한 출자금 100만원을 내어 정식조합원이 되었다. 매우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 (남편) 내 부인이 기분 좋고 성도 덜 내고 우리 집 농가경영에 도움이 된다(영천시 김00, 신00부부).

(남편) 1.5천평 농지를 공동명의로 전환하였다. 서로의 중요성을 알고 존중해 주려는 마음자세가 변하였다(광양시 임00, 이00부부).

(부인) 농협 정 조합원으로 될 수 있었고 자신 스스로 희망과 소중함에 힘이 생겼다(영천시 신00, 서00부부).

(부인) 남편이 잘못될 경우 자식도 있는데, 남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만약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것이다. 재산을 분배하면 일을 보는 과정에서 힘들다. 농지원부, 행정일 보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다. 내 재산권도 달라고 하고 싶지만, 바람일 뿐이다. 실제로 꼭 달라는 것보다는 협약서를 통해서 나의 노동이나 노력도 좀 알아달라는 의미이다(함평군 석00, 김00부부).

(남편) 자산의 대부분이 부인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가족 경영협약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 1,000평을 내 명의로 이전 받았다(대전시 박00, 정00부부).

(남편) 부천에 26평 아파트와 당진에 임야를 부인 명의로 갖고 있다. 개인사업 하면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부인 명의로 해 두었다.

(부인) 내 이름으로 집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고, 여하튼 좋다. 그리고 신랑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당진군 박00, 최00부부).

3) 2005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의 한 분과이었던 '아시아 여성농업인 전문가(AWARD)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다. 조옥라 교수는 세계농촌사회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농가 자산의 일부를 부인명의로 보유하는 것은 농가경영 위험관리 차원에서 이점이 있고,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삶의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배우자를 더욱 신뢰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점에서 가족경영협약을 맺는 것, 그리고 일부 자산을 부인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농가 생활과 경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가족구성원의 역량을 발휘하는 경영구조로 진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은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인정 절차의 미비 때문에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으면 법적으로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지소유는 농업인으로서 정책사업지원·융자·연금·복지 수혜는 물론 불의의 사고 발생시 보상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유효한 방안이다. 부인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현상은 여성농업인의 독자적 또는 동반자적 경영자로서 남편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산 명의 이전 시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의 부담이 크므로 제도개선을 지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4. 경영대표권 참여 확대

농가의 상품출하자 명의, 농산물 판매대금 입금통장 명의와 통장관리자 등을 조사 분석하여 경영대표권 참여를 살펴보았다(Table 6).

가족경영협약 농가에서 농산물의 상품출하자 명의는 ‘모두 남편’인 경우가 64.9%로 가장 많았고 ‘품종, 품목, 작목에 따라 다름’이 15.5%였다. ‘모두 부부공동’이 12.4%이었고 ‘모두 부인명의’는 7.2%였다. 이는 선행연구(허미영·박민선 2004)에 비하여 ‘모두 남편’은 적고, ‘품종, 품목, 작목에 따라 다름’, ‘모두 부인’과 ‘모두 부부공동’은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경영협약에 의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대표권 참여가 확대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가족경영협약 농가의 농산물 판매대금 입금통장 명의는 ‘모두 남편’이 59.6%로 가장 많았고 ‘품종, 품목, 작목에 따라 다름’ 경우는 20.2%였

고 ‘모두 부인’ 14.1%, ‘법인 또는 부부공동’이 5.1%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선행연구(허미영·박민선 2004)에 비하여 ‘모두 남편’ 명의가 낮고 ‘모두 부인 명의’가 높아서 가족경영협약이 여성농업인의 경영대표권 참여를 높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족경영협약 농가의 농산물 판매수입 통장관리자는 ‘모두 부부공동’이 32.3%로 가장 높았고, ‘모두 남편’ 27.3%, ‘모두 부인’이 28.3%, ‘품종, 품목, 작목에 따라 다름’이 12.1%였다. 이는 선행연구(허미영·박민선 2004)에서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비중 20.7%에 비하여 32.3%로 높고, 모두 남편 46.7%에 비하여 27.3%로 낮게 나타났다. 가족경영협약의 영향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남편이 비 농업인이고 부인이 실질적으로 농

Table 6. Wife's participation in farm representation in FMA couples

(N=100)		
Classification	Category	N(%)
Name of product seller	husband	63(64.9)
	wife	7(7.2)
	different by variety, item, and/or crop	15(15.5)
	jointly husband and wife	12(12.4)
	others	0(0.0)
total		97(100.0)
Name of income bankbook from product sales	husband	59(59.6)
	wife	14(14.1)
	different by variety, item, and/or crop	20(20.2)
	legal body or jointly husband and wife	5(5.1)
	others	1(1.0)
total		99(100.0)
Manager of income bankbook from product sales	husband	27(27.3)
	wife	28(28.3)
	different by variety, item, and/or crop	12(12.1)
	jointly husband and wife	32(32.3)
	others	0(0.0)
total		99(100.0)

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품출하자 명의, 농산물 판매대금 입금통장 명의 등 경영대표권은 남편이 담당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독자적으로 정책사업지원·융자·연금·복지 수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고 보상의 상황이 되었을 때 농업인 입증이 곤란한 것이 일반적인데, 가족경영협약을 통한 자각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대표권 참여에 변화가 감지된다.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부부노동 중심의 가족농에서 가족원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가족경영협약을 실천하는 농가 114호의 부부 2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가족경영협약이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젊고 선도적인 농업인 집단이었다.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를 막론하고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부인보다 높았지만, 협약 전에 비하여 협약 후에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감소하였고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증가하였다. 특히 수입과 지출 관리에 관한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연간영농계획, 품종선택과 식부면적결정, 수입과 지출관리에 관한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영농활동 역할 기여도 역시 가족경영협약 전과 후를 막론하고 남편이 부인보다 높았지만, 협약 전에 비하여 협약 후에 남편의 영농활동 역할 기여도는 감소하였고 부인의 역할 기여도는 증가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대가로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보상을 받는 농가가 53.3%로 선행연구의 18.0%보다 35.3% 높았고, 여성농업인 명의의 자산보유 농가가 48.1%로 협약 전의 29.1%보다 19.0% 높게 나타나, 가족경영협약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대가에 대한 보상과 자산의 명의이전은 농가경영의 위험관리 방안으로

서 유효하고,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법적 인정을 받는 데 유효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품출하자 명의, 농산물 판매대금 입금통장 명의, 통장관리자 등 부인의 경영대표권 참여도 다소 높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가족경영협약의 실천에 의하여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 경영성과 참여, 재산 참여, 경영대표권 참여가 확대되어 농가경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여성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 법적 인정, 즉 사회적으로 노동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농가 내부의 여성농업인이나 영농승계자 등 가족원 각자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중요한 열쇠의 하나가 가족경영협약에 있으며, 이들 가족종사자가 농업인으로서의 애매한 지위 때문에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데 대한 이해가 광범하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시장 개방화 진전에 대응하여 농업부문의 양성평등구현과 농가경영 개선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가족경영협약의 확대 추진을 제언한다. 이러한 가족경영협약의 실천이 농가경영 개선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강혜정·마상진(2007)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조미요시(五條滿義)(2006) 일본에서 가족경영협정의 전개상황과 농업농촌의 남녀공동참여의 기본과제. 가족경영협약을 통한 가족종사자 지위 인정과 농가경영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미간행), 농촌자원개발연구소·농업경영연구포럼, 4-6.
 김경미(2004)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방안. 농정연구 11, 91-125.
 김경미(2006a) 여성의 농업참여와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 여성농업인 불평등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사)생활개선중앙회, 23-76.
 김경미(2006b) 한국의 가족경영협약 도입 시험과 가능성. 가족경영협약을 통한 가족종사자 지위 인정과 농가경영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미간행), 농촌자원개발연구소·농업경영연구포럼, 9-61.
 김이선(1977) 개방농정체제에서의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3개 마을 사례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 김종숙·정명채(1992)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 충남지역 4개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1999)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일경제사업연구원.
- 박민선(1984) 농가의 의사결정과 부녀자의 역할. 농협조사월보, 8월호.
- 박민선(2004) 여성의 재산권 확립방안: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에 대한 평가와 재산권 확립방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98-310.
- 박민선·허미영(2005) 한국농가의 성별 불평등과 변화가능성 - 가족경영협약서 분석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5(1), 103-132.
- 양승춘(1984)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부자협약 농업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김경미·최윤지(2006) 사고 보상과정에서 나타난 여성농업인의 불평등.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3(2), 299-312.
- 이호철·최수영·박재홍(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농촌사회 12(1), 37-62.
- 최윤지(2007)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국회.
- 허미영(2002) 환경농업과 여성노동.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미영(2003) 한국환경농가여성의 노동과 농사일만족도. 한국농촌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농촌사회학회, 59-76.
- 허미영·박민선(2004)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실태와 그 결정 요인. 농촌사회 14(1), 205-237.
- 허미영·강경하·이진영·김경미·최윤지(2007) 친환경농가부부의 가족경영협약 이행실태 분석 - 관행농가와 비교연구. 친환경농업연구 9(2), 57-75.
- Kang, KH(2007) Could Adoption of the Family Agreement on Farm Management (FAFM) Improve the Legal Status of Women Farmers in Korea? Asi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ARSA)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52-53.
- Kawate, T(2007). Change and Problems of Rural Life and Rural Women in Japan: Rural Women leaders as the Most Important Key Persons to Develop Agriculture and Rural Life. 2007 RDA-FFTC International Seminar on Enhancement of Women Farmers' Role in the Development of Rural Asia, 219-231.